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81-115  
<https://doi.org/10.29212/mh.2023.126.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

이종화 | 건양대학교 초빙교수

윤현식 | 이순신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조선 수군의 규모
  3. 명 수군의 규모
  4. 맺음말

**초 록**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명연합수군이 함께 전투에 임했다는 점과 7년 전쟁의 최후 결전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요성에 비해 이 전투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단지 이순신이 전사한 전투이고 일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사실 노량해전의 배경, 전투에 참전한 군사 규모, 전투 경과와 그 의의 등을 다룬 개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전투에 참전한 조선 수군과 명 수군의 규모는 지금까지도 학자에 따라 조금씩 견해가 다르다. 그나마 조선 수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명 수군의 규모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는 당시 조선과 명 수군의 전략과 전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제이다. 그 규모를 가능한 한 정확히 파악할수록 조선과 명 수군의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노량해전의 경과와 전쟁의 흐름까지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량해전을 다룬 여러 사료와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서 이 전투에 참전한 각국의 수군 규모를 자세히 고찰하려 한다. 특히 새로이 소개되거나 발굴된 사료를 자세히 검토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노량해전의 조명연합수군 규모에 대해 놓친 부분을 밝혀내려 노력하였다.

조선 수군의 규모는, 명량해전 이후 전선 규모의 변화와 사로병진 작전 시기 전선의 손실 그리고 노량해전 직후 남은 전선의 숫자 등을 비교 및 고찰하여 기존 연구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조경남의 『난중잡록』, 이원익의 『오리집』, 이항복의 『백사집』, 진경문의 『섬호집』, 일본 측 기록인 『정한록』 등 다양한 사료를 참조하였다.

명 수군의 규모는 중국 측 기록인 『경략어왜주의』, 『양조평양록』, 『경략복국요편』 등을 참조하였으며, 우리나라 기록인 『선조실록』, 이순신의 『난중일기』, 신희의 『상촌집』, 신경의 『재조변방지』 등을 교차 검증하였다.

**주제어** : 정유재란, 노량해전, 조명연합수군, 수군 규모, 이순신

(원고투고일 : 2023. 1. 15, 심사수정일 : 2023. 2. 21, 게재확정일 : 2023. 3. 2.)

## 1. 머리말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로서 조선 수군과 명 수군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노량해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가 연구를 진행하여 전투가 벌어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 등이 상당 부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이 전투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군사 규모는 전략·전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량해전의 수군 규모를 파악하는 문제는 정유재란 시기 조선과 명의 전략·전술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가 노량해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형식의 『임진전란사』는 노량해전의 경과에 대해 전투 상황도와 조·명·일 참전 장수 명단을 제시하고 설명하면서 조명연합수군의 선박을 약 500척으로 서술하였다.<sup>1)</sup> 이 책이 서술한 조·명·일 참전 장수 명단은 현재까지도 종종 관련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명기의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은 『명실록』이나 『명사』와 같은 중국 사료를 활용하여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이 참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선박을 약 500척의 함대로 서술하였다.<sup>2)</sup>

1) 이형식, 『임진전란사』, 신현실사, 1974, 1117~1129쪽.

2) 한명기,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군사』 38,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99, 35~41쪽/46쪽.

이민웅의 『임진왜란 해전사』는 명량해전 이후 조선 수군의 재건과 조·명 연합함대의 성립 그리고 사로병진 작전 과정을 소개하고 그 연장선에서 노량해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 책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규모를 전선 80여 척과 병력 10,000여 명으로, 명 수군의 규모를 함선 300여 척과 병력 13,0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sup>3)</sup>

김경록의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은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 배경과 파병 과정 그리고 지휘 체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사로병진 작전 시기 명 수군의 병력을 13,000명으로 보았다.<sup>4)</sup>

제장명의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은 정유재란 시기 조명연합수군의 활동을 종합하여 설명하였다. 이 논문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규모를 판옥선 60여 척과 병력 7,300여 명으로, 명 수군의 규모를 전선 약 400척과 병력 19,400명으로 추정하였다.<sup>5)</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는 학자마다 견해 차이가 크다. 본 논고의 목적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천착하여 기존 연구에서 놓친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다.

조선 수군의 전선(판옥선)<sup>6)</sup> 규모는, 명량해전 이후의 전선 건조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전선 손실 그리고 노량해전 이후의

3)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20~277쪽.

4)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파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 1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3, 17~27쪽.

5)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7~148/168/180쪽.

6)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板屋船)은 보통 전선(戰船)으로 불렸다. 이산해(李山海, 1539~1609)의 시문집인 『아계유고(鵝溪遺稿)』 권5의 「차류(筭類)」-「진폐차(陳弊劄)」는 ‘전선은 지금의 판옥선을 말한다(所謂戰船者, 今之板屋).’라고 기록하였다.

전선 규모 등을 검토하여 추정하였다. 조선 수군의 병력 규모는 참조할 수 있는 사료가 많지 않아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앞에서 추정한 전선 규모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전선 탑승 인원을 활용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추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는 『선조실록』과 『난중일기』 그리고 각종 문집과 선생안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료를 비교·검토하여 그 명단을 작성하였다.

명 수군의 병력 규모는 중국 사료인 『경략어왜주의』와 『명실록』에 나타난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보강하였다. 명 수군의 병선<sup>7)</sup> 규모는 중국 사료인 『경략복국요편』·『경략어왜주의』·『명실록』의 기록을 위주로 임진왜란 시기의 병선 건조, 병선 동원, 탑승 인원 등을 검토하여 추산하였다.

『경략복국요편』이나 『경략어왜주의』와 같은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어 본 논고의 저술이 가능하였다. 특히 『경략어왜주의』는 현재 번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번역본이 발간되면 정유재란 시기 조선과 명의 군사 전략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명 수군의 규모에 대한 연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임진왜란 시기 명 수군의 선박은 그 종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경우 대개 ‘병선(兵船)’으로 통칭하였다. 본 논고도 명 수군의 선박을 가리킬 때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조선 수군의 규모

### 가. 판옥선 규모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주력 전선은 판옥선이다. 판옥선은 16세기 남해안 일대에 출몰하던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전의 주력 전선이었던 맹선(猛船)이 삼포왜란(1510년)과 사랑왜변(1544년) 그리고 을묘왜변(1555년) 때 전투력의 한계를 드러내자, 위기의식을 느낀 조정은 고려시대의 주력 함선인 누선(樓船)을 참고하여 맹선보다 더욱 전투력이 뛰어난 판옥선을 건조하게 되었다.<sup>8)</sup>

판옥선은 노량해전 때 조명연합수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량해전에 대한 기록이 적잖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투에 참전한 판옥선의 규모를 명시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그 규모는 여러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표 1>은 명량해전 이후의 판옥선 규모 관련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명량해전 이후 판옥선 규모

사료	판옥선 규모
『사대문계』 권24, 만력25년(1597년) 11월 14일 문서	전라도 나주 발음도 <sup>9)</sup> 에 병선(兵船) 15척과 병력 2,000여 명이 정박
『선조실록』 권97, 31년(1598) 2월 22일 정축 4번째 기사	전선(戰船) 40척이 건조 완료

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판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8쪽.

『사대문궤』 권28, 만력26년(1598년) 8월 7일 문서	전선(戰船) 21척이 건조 완료
이원익, 『오리집』 권2, 「소차」 - 「인견시계사」(1599년 11월 25일)	양남과 호서의 선박(船)이 총 70여 척
『선조실록』 권120, 32년(1599) 12월 8일 계미 4번째 기사	전선(戰船) 10척이 연말까지 건조 완료 예정
『선조실록』 권121, 33년(1600) 1월 29일 갑술 1번째 기사	삼도의 판옥선(板屋船)이 총 80여 척 <sup>10)</sup>
『선조실록』 권126, 33년(1600) 6월 15일 병술 2번째 기사	삼도의 전선(戰船)이 총 80척

1597년 9월 16일 벌어진 명량해전 때 통제사 이순신 휘하의 조선 수군은 판옥선 13척<sup>11)</sup>으로 일본군 130여 척과 싸워 31척을 격침하였다. 이후 조선 수군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고군산도에서 잠시 머물다가 곧 남하하여 전라도 해남 일대에서 군사 활동을 펼쳤다.<sup>12)</sup> 『사대문궤』 1597년 11월 14일 문서는 당시 조선 수군의 병선 15척이 나주 발음도에 정박했다고 기록하였는데, 고군산도까지 북상했다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판옥선의 숫자가 2척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칠천량해전 직후 조정은 통제사 이순신과 경상우수사 배설 등으로 하여금 흩어진 병력과 선박을 모아 정비하도록 독촉하는 한편 선박을 다시 추가로 건조하였다.<sup>13)</sup> 『선조실록』 1598년 2월

9)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 1597년 10월 11일은 조선 수군이 발음안편도(發音安便島)에 정박한 일을 기록하였다. 『사대문궤(事大文軌)』에 조선 수군이 정박한 곳으로 기록된 발음도(發音島)는 발음안편도와 같은 곳으로 생각된다.

10) 이항복(李恒福)의 『백사집(白沙集)』 권5의 「차자(筈子)」- 「경자이도체찰사재전라도차(庚子以都體察使在全羅道筈)」(1600년)에 따르면 당시 남방의 조선 수군 선박은 호서(湖西) 10척, 영남(嶺南) 20여 척, 호남(湖南) 40여 척이다.

11) 『선조실록』 권94, 30년(1597) 11월 10일 정유 5번째 기사; 『등당가각서(藤堂家覺書)』. 명량해전에 참전한 판옥선의 숫자는 『선조실록』에는 ‘전선 13척(戰船一十三隻)’으로, 『등당가각서』에는 ‘적의 대장선 13척(番舟の大將分十三艘)’으로 기록되어 있다.

12)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7년 9월 16일~1597년 10월 13일.

13) 『사대문궤(事大文軌)』 권22, 만력25년(1597) 8월 5일 문서, “閑山水兵既已潰散, 船隻既已失亡, 雖督令, 新任統制使李舜臣, 慶尙右道水軍節度使裴奭等, 招集潰兵整

22일 기사와 『사대문계』 1598년 8월 7일 문서에 각각 기록된 전선 40척 건조 완료와 전선 21척 건조 완료는 그 결과이다. 임진왜란 초기 전라좌수영에서 군관을 지낸 나대용은 1606년 조정에 올린 상소에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 이후 간신히 전선 60여 척을 마련하여 삼도의 각처에 나누어 주었지만 ...”이라고 서술하였다.<sup>14)</sup> 이 상소에 나타난 전선 60여 척은 1598년 새로 건조된 전선 40척과 전선 21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사로병진 작전 시기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 있던 조선 수군은 전라좌수군·전라우수군·경상우수군·충청수군이다. 이 시기에 경상좌수군은 경상좌수사 이운룡의 지휘 아래 경상좌도 해안에서 별도로 군사 활동을 하였다.<sup>15)</sup> 경상좌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거의 와해되었다가 1593년부터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조정은 경상좌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1593년 겨울에 전선 9척(또는 5척)을 건조하였다.<sup>16)</sup> 이후 경상좌수군의 전선 규모는 1601년까지 10척 정도에 머무른 채로 큰 변동이 없었다.<sup>17)</sup> 경상좌수군의 전선 규모의 변동 상황을 감안하면, 조정이 1598년에 건조한 전선 60여 척은 대부분 전라좌수군·전라우수군·경상우수군·충청수군에 배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로병진 작전 시기 통제사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1597년 말 보유하고 있던 15척에다가 1598년 새로 건조한 60여 척을 더하여 총 75척 내외로 추정된다.

點潰船，又多添造船隻，以備天兵協剿之用，而賊情方急禍在焚眉必須。”

14) 『선조실록』 권206, 39년(1606) 12월 24일 무오 3번째 기사, “丁酉更亂之後, 戰船艱備之數, 通三道六十餘艘, 各處分付.”

15)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 109,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2018, 304~311쪽.

16) 제장명, 위의 논문, 2018, 298~304쪽.

17) 『선조실록』 권135, 34년(1601) 3월 18일 병진 3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42, 34년(1601) 10월 19일 계미 2번째 기사. 앞의 두 기사는 당시 경상좌수군의 전선 규모를 각각 '10척'과 '10여 척'으로 기록하였다.

사로병진 작전 시기에 벌어진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 때 통제사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일부 손실이 발생하였다. 사로병진 작전 시기 판옥선 손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사로병진 작전 시기 판옥선 손실

사료	판옥선 손실
진경문, 『섬호집』 권하, 「예교진병일록」 10월 3일	왜교성 전투 때 수군(舟師) 3척이 나포됨
조경남, 『난중잡록』 권3,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 때 함평의 전함(戰艦)이 불타서 소실됨
『선조실록』 권109, 31년(1598) 2월 2일 입자 3번째 기사	노량해전 때 명 장수 등자룡이 판옥선을 타고 싸우다 전사함
신희, 『상촌집』 권56, 「지」-「천조선후출병래원지」	노량해전 때 명 장수 등자룡이 탑승한 선박이 불타서 소실됨
시마즈 히사미치, 『정한록』 권6, 「구요가사부순천선사지사」	노량해전 때 조선의 군선(軍艦) 4척과 명의 전함(戰艦) 2척 격침됨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은 조·명·일 세 나라의 병력 수만 명이 동원된 커다란 전투였다. 특히 노량해전은, 조·명의 장수 10여 명이 전사하고 일본 선박 200여 척이 격침될 만큼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표 2>에 열거한 사료 가운데에는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기록도 있지만, 왜교성 전투와 노량해전의 전투 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판옥선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표 2>의 사료에 따르면 왜교성 전투에서는 3척, 노량해전에서는 4~6척의 판옥선 손실이 있었다. 이 손실 규모를 반영하면 노량해전에 참전한 판옥선은 70여 척으로, 노량해전 직후의 판옥선은 60여 척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에 열거한 『오리집』의 1599년 11월 25일 「소차」는 노량해전으로부터 약 1년 뒤인 당시 양남(전라도와 경상도)과 호서(충청도)의 선박(판옥선)을 70여 척으로 기록하였다. 경상좌수군

의 판옥선 규모가 1593년 말부터 1601년까지 약 10척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1599년경 전라좌수군·전라우수군·경상우수군·충청수군 소속 판옥선은 약 60여 척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추정한 노량해전 직후의 판옥선 숫자와 부합한다.

## 나. 병력 규모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병력 규모 또한 판옥선의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를 명시한 기록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여러 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추정해야 한다.

<표 1>에 열거한 『사대문궤』 1597년 11월 14일 문서는 명량해전 이후 전라도 나주 발음도에 정박한 통제사 이순신 휘하 조선 수군의 병선(판옥선)과 병력을 각각 15척과 2,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다.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이 125~140명이므로<sup>18)</sup> 『사대문궤』의 문서에 기록된 병선의 숫자와 병력의 숫자는 서로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나주 발음도 정박 이후 통제사 휘하 조선 수군은 1597년 10월 29일 나주 보화도로 진영을 옮겨 통제영을 설치했다가 1598년 2월 17일 다시 강진 고금도로 통제영을 옮겼다. 보화도 통제영과 고금도 통제영 시기 조정과 통제사 이순신 휘하 장수·관리는 조선 수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전선 건조, 병력 모집, 군량 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19)</sup>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은 칠천량해전 직후부터 선박을 다시 건조하도록 조치하

18) 김재근, 『속한국선박사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01~104쪽; 김병륜, 「판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2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3, 172~176쪽. 전자는 일반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을 125~130명으로 추산하였으며, 후자는 판옥선 1척에 130~140명 정도가 탑승하는 것을 일반적인 사례로 보았다.

19)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2004, 236~246쪽.

였으므로 보화도와 고금도 통제영 시기 이전에 이미 전력 증강의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징비록』은 조선 수군이 고금도에 나아가 주둔했을 때의 병력이 8,000여 명이라고 기록하였다.<sup>20)</sup> <표 1>에 열거한 『선조실록』 1598년 2월 22일 기사에 전선 40척이 건조 완료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고금도 통제영 시기의 판옥선은 기존의 15척에다가 40척을 더하여 총 55척에 이른다.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으로 계산해보면 8,000여 명은 판옥선 55척을 운용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다. 수군의 병력 운용은 보통 선박의 규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고금도 통제영 시기의 병력은 새로이 건조된 판옥선의 숫자에 맞추어 모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보화도에서 충분한 수의 판옥선과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통제영을 고금도로 옮긴 것으로 생각된다.

1598년 4월 3일 명 제독 마귀는 선조가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휘하의 병력이 얼마인지 물었는데, 선조는 이에 대해 2,000여 명이라고 대답하였다.<sup>21)</sup> 통제영이 고금도로 옮긴 지 이미 1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명량해전 직후의 병력과 비슷한 숫자로 대답한 것이다. 칠천량해전 직전인 1597년 6월경 조정은 명 측에서 조선 수군의 선박, 병력, 군량, 기계 등의 숫자를 문의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제사와 체찰부사로 하여금 해당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수시로 보고하도록 조치하였다.<sup>22)</sup>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문의에 대한 선조의 대답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으므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sup>23)</sup> 1595년 3월 조정은

20) 유성룡(柳成龍), 『징비록(懲毖錄)』 권2, “是時, 李舜臣, 已有軍八千餘人, 進駐古今島, 患乏糧, 作海路通行帖.”.

21) 『선조실록』 권99, 31년(1598) 4월 3일 정사 4번째 기사.

22) 『선조실록』 권89, 30년(1597) 6월 26일 을유 5번째 기사.

명 측에 자문(咨文)을 보내면서 당시 한산도 통제영에 주둔한 전선을 총 60척, 병력을 총 6,838명으로 적었다.<sup>24)</sup> 통제영의 전선은 이전 해인 1594년 3월경 이미 140여 척에 이르렀으므로<sup>25)</sup> 조정이 그 자문에 적은 전선과 병력의 숫자는 어떠한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조가 마귀에게 대답한 고급도 통제영의 병력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sup>26)</sup>

『선조실록』 1598년 9월 28일 기사와 1598년 10월 12일 기사는 사로병진 작전에 동원된 통제사 휘하 수군 병력을 각각 7,300여 명과 7,328명으로 기록하였다.<sup>27)</sup> 『징비록』에 기록된 8,000여 명보다 오히려 병력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앞 절에서 추정된 노량해전 참전 판옥선 70여 척을 운용하기에도 부족하다. 1598년 9월 28일 기사는 명 측에 보내는 자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록이고, 1598년 10월 12일 기사는 내용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두 기사에 적힌 병력 또한 마귀의 문의에 대한 선조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의문스럽다.

임진왜란 시기 판옥선 1척의 탑승 인원이 125~14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로병진 작전에 동원된 조선 수군의 병력은 판옥선 70여 척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인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비록 왜교성 전투 때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sup>28)</sup>

23) 이민웅, 앞의 책, 2004, 243쪽. 이 책은 명 제독 마귀의 문의에 대한 선조의 대답에 대해 “명량해전 직후 다시 수군을 모집하기 시작한 초기에 보고된 수치였거나, 또는 선조가 우리 수군 세력을 줄여서 답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였다.

24) 『사대문궤(事大文軌)』 권12, 만력23년(1595) 3월 4일 문서.

25) 이민웅, 앞의 책, 2004, 149쪽.

26) 명 제독 마귀에 대한 선조의 대답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과 명이 펼친 외교·군사 전략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는 본 논고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함을 밝힌다.

27) 『선조실록』 권104, 31년(1598) 9월 28일 경술 19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12일 갑자 7번째 기사.

2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7년 9월 20일 ~ 1597년 10월 9일. 『난중일기』는 왜교성 전투 때 다치거나 전사한 장수의 이름은 기록하였지만, 병

노량해전에 참전한 병력은 이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 다. 참전 장수

이형석의 『임진전란사』는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를 명단으로 정리하였다.<sup>29)</sup> 아래의 <표 3>은 『선조실록』과 『난중일기』 그리고 각종 문집과 선생안 등 여러 관련 사료를 비교·검토하여 『임진전란사』의 명단을 새로이 보완한 것이다.<sup>30)</sup>

<표 3>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

참전 장수
녹도만호 송여종(宋汝棕) 1. 강항(姜沆), 『수은집(睡隱集)』 권4, 「묘갈(墓碣)」-「증우윤송공비명(贈右尹宋公碑銘)」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발포만호 소계남(蘇季男) 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1월 17일 : 일본군의 선박과 군량을 탈취했다고 기록됨
낙안군수 방덕룡(方德龍) 1. 『선조실록』 권106, 31년(1598) 11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 2.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
홍양현감 고득장(高得蔭) 1. 『선조실록』 권106, 31년(1598) 11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 2.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이 ‘高德章’으로 오기됨)
군관 송희립(宋希立) 1. 『선조실록』 권109, 32년(1599) 2월 8일 무오 2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

력의 손실은 기록하지 않았다.

29) 이형석, 『임진전란사』, 신현실사, 1974, 1117~1118쪽.

30) 윤현식, 『역사자료로 보는 난중일기』, 북랩, 2020, 568~570쪽. 앞의 줄지에 수록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 장수 명단을 작성하였다. 노량해전 참전 여부가 사료에 명시되지 않은 장수는, 관련 사료의 날짜가 노량해전이 일어난 날짜(1598년 11월 19일)로부터 한 달을 넘어가지 않으면 “참전 장수”로, 한 달을 넘어가면 “참전 추정 장수”로 구분하였다.

31) 『선조실록』 권165, 36년(1603) 8월 17일 경자 3번째 기사.

<p>군관 이연량(李彦良)</p> <p>1.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가리포침사 이영남(李英男)</p> <p>1. 『선조실록』 권106, 31년(1598) 11월 27일 무신 5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p> <p>2. 손기양(孫起陽), 『오한집(罄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p>
<p>미조항침사 김응함(金應緘)</p> <p>1. 『선조실록』 권165, 36년(1603) 8월 17일 경자 3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7년과 1598년 명단에 미조항침사의 성명이 김응함으로 기록됨</p>
<p>이진권관(성명 미상)</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罄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나주목사 남유(南瑜)</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罄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탄환에 맞았다고 기록됨</p> <p>2. 허목(許穆), 『미수기언별집(眉叟記言別集)』 권23, 「구묘문(丘墓文)」-「의춘군비(宜春春碑)」 :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서 노량 앞바다의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3. 『나주군읍지(羅州郡邑誌)』, 「선생안(先生案)」 : 노량해전에서 탄환에 맞아 전사했다고 기록됨</p> <p>4.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나주목사의 성명이 남유로 기록됨</p>
<p>해남현감 유형(柳珩)</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2.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함평현감 송섭(宋涉)</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罄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조경남(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3, 1598년 11월 19일 : 노량해전에서 함평의 전함이 적에게 불탔다고 기록됨</p> <p>3. 『함평현읍지(咸平縣邑誌)』, 「읍제선생(邑宰生案)」 : 송섭의 재임이 기록됨</p> <p>4.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함평현감의 성명이 송섭으로 기록됨</p> <p>5. 송이석(宋履錫), 『남촌집(南村集)』 권2, 「잡저(雜著)」-「현감송섭판관송흡이공정포사정도백문(縣監宋涉判官宋滄 二公旋喪事呈道伯文)」 : 노량해전에서 탄환에 맞아 전사했다고 기록됨</p>

32) 『선조실록』 권101, 31년(1598) 6월 27일 경진 2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13, 32년(1599) 5월 1일 무신 2번째 기사.

<p>무장현감 나덕신(羅德愼)</p> <p>1. 이서우(李瑞雨), 『송과집(松坡集)』 권13, 「묘지(墓誌)」-「행통정대부이산현감나공묘지명(行通政大夫尼山縣監羅公墓誌銘)」 : 이순신 휘하에서 노량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무장현감의 성명이 나덕신으로 기록됨</p> <p>3. 『전선무장지(全鮮茂長誌)』, 「관안(官案)」 : 나덕신의 재임이 기록됨</p>
<p>경상우수사 이순신(李純信)</p> <p>1.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22일 계유 1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서 명 수군의 대장 진린이 판옥선에 탑승하여 전투를 벌인 일을 목격했음을 조정에 보고함</p>
<p>안골포만호 우수(禹壽)</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2.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옥포만호 이섭(李漵)</p> <p>1. 『사대문궐(事大文軌)』 권28, 만력26년(1598년) 8월 16일 문서 : 옥포만호의 성명이 이섭으로 기록됨</p> <p>2.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3. 『선조실록』 권123, 33년(1600) 3월16일 기미 2번째 기사 : 옥포만호의 성명이 이섭으로 기록됨</p>
<p>경상우후 이의득(李義得)</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통영의 『충렬사지(忠烈祠誌)』, 「절도사명단(節度使名單)」 : 경상우수사 이순신의 우후의 성명이 이의득으로 기록됨</p>
<p>거제현령 김사중(金嗣宗)</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거제부읍지(巨濟府邑誌)』, 「환적(宦績)」 : 1598년에 전사했다고 기록됨</p> <p>3.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거제현령의 성명이 김사중으로 기록됨</p>
<p>당진포만호 조효열(趙孝悅)</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1월 17일: 일본군의 선박과 군량을 탈취했다고 기록됨</p>
<p>서천만호(성명 미상)</p> <p>1. 손기양(孫起陽), 『오한집(鰲漢集)』 권4,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의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서천권관(舒川權管)의 성명이 조덕린(曹德麟)으로 기록됨 (서천권관이 서천만호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움)</p>

<p>조방장 우치적(禹致績)</p> <p>1. 『선조실록』 권107, 31년(1598) 12월 18일 기사 4번째 기사 : 노량해전에 참전했다고 기록됨(관직 없이 성명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우치적의 관직이 조방장으로 기록됨</p>
<p>만호 권전(權詮)</p> <p>1. 『여지도서(輿地圖書)』, 「경상도(慶尙道)」-「안동(安東)」-「인물(人物)」 :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됨</p> <p>2. 김약련(金若鍊), 『두암집(斗庵集)』 권9, 「비갈묘지(碑碣墓誌)」-「자헌대부이조판서권공신도비명(資憲大夫吏曹判書權公神道碑銘)」 : 이순신 휘하에서 만호로 순절했다고 기록됨</p> <p>3. 『선무원종공신녹권(宣武原從功臣錄券)』 : 권전의 관직이 만호로 기록됨</p> <p>4. 김헌락(金獻洛), 『금계지(金溪志)』-「인물(人物)」 : 적량만호로 순절했다고 기록됨 (『금계지』가 19세기의 기록이기 때문에 권전이 적량의 만호임을 확정하기 어려움)</p>
<p>참전 추정 장수</p>
<p>보성군수 전백옥(全伯玉)</p> <p>1. 『선조실록』 권102, 31년(1598) 7월 7일 기축 1번째 기사 : 보성군수의 성명이 전백옥으로 기록됨</p> <p>2.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剡湖集)』 하권,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한 보성군수의 성명이 김백옥(金伯玉)으로 기록됨(성명이 오기됨)</p> <p>3.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보성군수의 성명이 김백옥(金伯玉)으로 기록됨(성명이 오기됨)</p>
<p>진도군수 선의문(宣義門)</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강진현감 송상보(宋商甫)</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금갑도만호(성명 미상)</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회령포만호 위대기(魏大器)</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회령포만호의 성명이 위대기로 기록됨</p>

<p>영등포만호 조계종(趙繼宗)</p> <p>1. 진경문(陳景文), 『섬호집(湖湖集)』 하권,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영등포의 선박이 참전했다고 기록됨</p> <p>2.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9월 9일 : 영등포만호의 성명이 조계종으로 기록됨</p> <p>3.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3일 갑진 11번째 기사 : 영등포만호의 성명이 조계종으로 기록됨</p>
<p>당포만호 안이명(安以命)</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10월 13일 : 당포만호의 성명이 안이명으로 기록됨</p> <p>2.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3일 갑진 11번째 기사 : 당포만호의 성명이 안이명으로 기록됨</p>
<p>조라포만호 정공청(鄭公淸)</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7년 10월 13일 : 조라포만호의 성명이 정공청으로 기록됨</p> <p>2. 『선조실록』 권127, 33년(1600) 7월 3일 갑진 11번째 기사 : 조라포만호의 성명이 정공청으로 기록됨</p>
<p>사랑만호 김성옥(金成玉)</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이 ‘金聲玉’으로 오기됨)</p>
<p>제포만호 주의수(朱義壽)</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10월 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p>
<p>평산포만호 정응두(丁應斗)</p> <p>1. 진경문(陳景文), 『섬호집(湖湖集)』 하권,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 왜교성 전투에 평산포의 선박이 참전했다고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평산포만호의 성명이 정응두로 기록됨</p>
<p>지세포만호(성명 미상)</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2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홍주대장 최호(崔灝)</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홍주대장의 성명이 최호로 기록됨</p>
<p>한산대장 신경윤(申景胤)</p> <p>1. 이순신, 『난중일기』, 1598년 9월 23일 : 왜교성 전투에 참전했다고 기록됨(성명 없이 관직만 기록됨)</p> <p>2.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 「장졸명단」 : 1598년 명단에 한산대장의 성명이 신경윤으로 기록됨</p>
<p>삼천포권관 박선춘(朴先春)</p> <p>1. 『사대문궤(事大文軌)』 권28, 만력26년(1598년) 8월 16일 문서 :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기록됨</p>

- ※ 금갑도만호의 성명은 이순신의 『난중일기』 1597년 10월 13일에 이정표(李廷彪)로 기록되어 있지만, 노량해전 때로부터 약 1년 이전의 기록이므로 위 명단에 '성명 미상'으로 서술하였다.
- ※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의 「장졸명단」의 1598년 명단에 기록된 아래의 인물들 또한 노량해전에 참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후 이중복(李中復)	남도포만호 김남걸(金南傑)
장흥부사 이간(李侃)	범성포만호 윤선각(尹先覺)
영암군수 이종성(李宗誠)	고부군수 구덕령(具德齡)
옥구현감 권흡(權洽)	
- ※ 배흥립(裴興立)은 그의 문집인 『동포선생기행록(東圃先生紀行錄)』을 포함한 어떠한 사료에서도 노량해전 참전 기록을 찾기 어렵다.
- ※ 『선조실록』의 기사<sup>31)</sup>에 따르면 전라우수사 안위(安衛)는 노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손기양(孫起陽)의 『오한집(鰲漢集)』 권4의 「잡저(雜著)」-「일록(日錄)」 1598년 12월 3일에 안위가 탄환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왜교성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참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 『선조실록』의 기사<sup>32)</sup>에 따르면 충청수사 오응태(吳應臺)는 노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표 3>의 장수 가운데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장수는 통제사 이순신, 낙안군수 방덕룡, 흥양현감 고득장, 가리포첨사 이영남, 이진권관, 나주목사 남유, 함평현감 송섭, 경상우우후 이의득, 거제현령 김사중, 서천만호, 만호 권전이다.

### 3. 명 수군의 규모

#### 가. 병력 규모

1593년부터 명과 일본 사이에서 진행되어왔던 강화 교섭이 몇 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1596년에 결렬되었다. 그 결과 강화를 주장하던 명의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이 탄핵을 당했으며, 명의 조정에서는 강화 노선을 반대하는 언론이 조성되었다.

1597년 2월경 결국 명의 만력제는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여 조선으로 파병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sup>33)</sup> 같은 해 6월 명 조정은 파병할 병력에 수군을 포함하기로 하였다가 곧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패배하자 수군의 파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sup>34)</sup>

명의 군문(軍門)이었던 형개(邢玠)의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는 정유재란 시기 명의 수군 전략을 자세히 실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칠천량해전 직후 형개는 명의 현지 병력 상황에 따라 우선 수병 1만 명을 징발하고 이후 추가로 수병 1만 명을 더 징발하도록 만력제에게 상소하였다.<sup>35)</sup> 이에 따라 명 병부는 1597년 9월까지 절강(浙江)·오송(吳淞)·복건(福建)·남경(南京)·강북(江北)·광둥(廣東)의 수병 21,000명을 징발하였으며, 만력제는 그 병력이 문제없이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sup>36)</sup> 징발된 수병 21,000명 가운데 10,000명은 조선의 강화(江華) 등의 입구를 방어하고, 5,000명은 전투병으로 배치하고, 3,000명은 여순(旅順)을 방어하고, 3,000명은 천진(天津)을 방어할 계획이었다.<sup>37)</sup>

1597년 10월경 계금(季金)이 이끄는 수병 3,000~3,300명이 명 수군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선에 도착하였다.<sup>38)</sup> 1598년 1월경에는 수병 10,000명이 여순에 집결하였는데, 그 병력의 일부는

33) 첸상생(陳尙勝), 「정유재란시 명군의 전략과 조·명연합작전의 변화」, 『韓中日共同研究 정유재란사』, 범우사, 2018, 254~260쪽.

34) 한명기, 앞의 논문, 1999, 37쪽.

35) 첸상생(陳尙勝), 위의 논문, 2018, 277쪽.

36)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14, 만력25년(1597) 9월 12일 3번째 기사.

37) 형개(邢玠), 『경략어왜주의(經略禦倭奏議)』 권2, 「守備閩直水兵併募江北沙兵疏」, “故臣謂今日之守, 當先以一萬水兵防朝鮮之江華等口, 以五千作戰兵, 以三千防旅順, 以三千防天津.”

38)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명 수군 장군의 군사 행적 고찰전」, 『이순신연구논총』 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8~10쪽.

여순에 그대로 머물러 산둥(山東)을 지키고 다른 일부는 장산도(長山島)로 나아가 등주(登州)와 래주(萊州)의 입구를 지키며 조선의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였다.<sup>39)</sup>

1598년 초 형개는 만력제에게 조선에 도착한 병사와 아직 도착하지 못한 병사를 통틀어 육군은 70,000여 명, 수군은 20,000여 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를 올렸다.<sup>40)</sup> 『명실록』 1598년 4월 기사에도 일본군을 정벌하기 위한 명의 병력이 모두 수륙 90,000여 명이라는 기록이 있다.<sup>41)</sup> 『선조실록』 1598년 3월 기사에 실린 명의 경리(經理) 양호(楊鏞)의 자문은 당시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을 총 8,300명으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명 수군을 총 12,600명으로 서술하였다.<sup>42)</sup> 양호의 자문에 서술된 숫자는 모두 20,900명으로서 형개의 상소에 서술된 파병 규모와 거의 일치한다.

신흙의 『상촌집』에 실린 정유재란 시기 명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은 관련 연구에서 자주 참조되는 기록이다.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만 아니라 저자 신흙 또한 임진왜란 시기 조정에서 요직을 지냈으므로 기록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39) 형개(邢玠), 『경략어왜주의(經畧禦倭奏義)』 권4, 「申飭五鎮沿海春汛疏」;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18, 만력26년(1598) 1월 9일 5번째 기사, “水路夾攻之舉量撥水兵, 一枝留守旅順山東, 總兵李成勛亦宜統率舟師, 出汛于長山島, 以守登萊之門戶, 備旅順之應援, 而並壯朝鮮之聲勢.”

40) 형개(邢玠), 『경략어왜주의(經畧禦倭奏義)』 권4, 「催發續調兵馬疏」.

41)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21, 만력26년(1598) 4월 2일 1번째 기사.

42) 『선조실록』 권98, 31년(1598) 3월 29일 갑인 6번째 기사. 이 기사에 실린 명 수군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은 진린(陳璘) 5,000명, 계금(季金) 3,300명, 장양상(張良相) 3,000명, 심무(沈茂) 3,100명, 복일승(福日昇) 1,500명, 양천윤(梁天胤) 3,000명, 왕원주(王元周) 1,000명, 이원상(李元常) 1,000명이다. 여기에 실린 이원상(李元常)의 이름은 이천상(李天常)의 오기이다. 이 기사는 진린과 계금 두 장수의 휘하 병력을 조선에 도착한 병력으로 서술하였는데, 진린이 실제로 조선에 도착한 시기는 6월경이다.

아래의 <표 4>는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을 정리한 것인데, 그 병력의 합계는 30,290명으로서 형개의 상소나 양호의 자문에 보이는 파병 규모보다 약 1.5배가 많다. 『상촌집』의 기록에 대하여 『임진왜란 해전사』는 명 측이 주장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였거나 명의 파병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sup>43)</sup>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병력은 분명 문제가 많은 기록이지만,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 장수의 성명과 휘하 병력을 서술한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파병하기로 계획한 수군 병력 20,000명 가운데 일부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sup>44)</sup>

<표 4> 신흙의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장수와 휘하 병력

관직 / 성명	병력	비고
좌영도사 진구경(陳九經)	수병 2,000명	노량해전 참전
좌영지휘중군 심찬(沈璨)	보병 2,000명	진린을 따라 조선에 도착
표하광동영친총 장여문(張汝文)	낭토군 4,590명	진린을 따라 조선에 도착
표하유격 왕원주(王元周)	수병 2,000명	노량해전 참전
흙차비예부총병 등자룡(鄧子龍)	수병 3,000명	노량해전 전사
흙차통령광동수병유격장군 심무(沈茂)	수병 1,000명	

43) 이민웅, 앞의 책, 2004, 248~251쪽. 이 책은 제갈원성(諸葛元聲)의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의 기록, 『선조실록』의 기사에 실린 명의 경리(經理) 양호(楊鎬)의 자문(咨文), 신흙(申欽)의 『상촌집(象村集)』의 기록, 『선조실록』의 기사와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행록(行錄)』에 실린 명 장수들 각각의 병력 등을 비교 및 고찰하여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추정하였다.

44) 신흙(申欽), 『상촌집(象村集)』 권56, 「천조선후출병래원지(天朝先後出兵來援志)」; 신흙(申欽), 『상촌집(象村集)』 권57, 「천조소사장신후거래성명 기자임진지경자(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함차통령산동직례수병유격장군 복일승(福日昇)	수병 1,500명	노량해전 참전
함차통령절직수병유격장군 계금(季金)	수병 3,200명	노량해전 참전
함차통령남직수병유격장군 양천운(梁天胤)	수병 2,000명	
흙의천총 이천상(李天常)	수병 2,700명	노량해전 참전
오종도(吳宗道)	-	1599년 조선 도착
함차통령북진수병어왜유격장군 백사청(白斯淸)	수병 1,600명	1599년 4월 조선 도착
함차통령절강수병어왜유격장군 장양상(張良相)	수병 1,500명	1599년 조선 도착
함차통령남병유격장군 만방부(萬邦孚)	수병 2,200명	1599년 4월 조선 도착
친진독부표하중군수비 이응창(李應昌)	수병 1,000명	1599년 조선 도착
※ 신경의 『재조변방지』 권6에 따르면 오종도, 백사청, 장양상, 만방부, 이응창은 수병을 거느린 장수로서 1599년 7월경 조선의 요충지에 나누어 주둔하였다. 『재조변방지』에 기록된 이응창의 관직은 유격장군이고 휘하 병력은 2,000명이다.		

중국 사료인 『양조평양록』은 전쟁 직후인 1606년경 편찬된 책으로서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기록하고 명 수군 장수 명단을 첨부하였다.<sup>45)</sup> 신경의 『재조변방지』와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명 수군 병력을 『양조평양록』과 비슷한 13,200명으로 기록하였다.<sup>46)</sup> 일본 사료인 『정한록』은 조명연합수군의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는데, 함께 기록한 명 수군 장수 명단이 『양조평양록』의 해당 명단과 일치한다.<sup>47)</sup> 즉, 후대의 조선과 일본 학자들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

45) 제갈원성(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 제4권, 「일본하(日本下)」. 『양조평양록』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장수를 진린(陳璘), 등자룡(鄧子龍), 마문환(馬文煥), 계금(季金), 장양상(張良相) 등으로 기록하였다. 장양상은 전쟁 이후인 1599년 조선에 입국한 사실이 『선조실록』 기사에서 확인되므로 『양조평양록』의 명 수군 장수 명단은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46) 신경(申稔), 『재조변방지(再造藩邦志)』 권5; 이긍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7권, 「선조조고사본말(宣祖朝故事本末)」-「수륙동정왜적절환(水陸東征倭賊撤還)」.

47) 시마즈 히사미치(島津久通), 『정한록(征韓錄)』 권6, 「구오가사부순천선사지사(救五家事附順天船師之事)」.

군 병력에 대하여 대체로 『양조평양록』의 기록을 수용하고 있다. 참고로 『임진전란사』는 『재조변방지』에 기록된 명 수군 병력과 명 수군 장수 명단을 그대로 참조하였으며, 일본 연구서인 『일본전사 조선역』과 『조선역수군사』는 명 수군 병력을 『재조변방지』나 『연려실기술』의 기록과 같은 13,200명으로 서술하였다.<sup>48)</sup>

사료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장수 가운데 휘하 병력의 숫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수는 진린과 계금이다. 진린은 『명실록』 기사에 광동영병(廣東營兵) 5,000명을 이끌고 조선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9)</sup> 『선조실록』의 기사에 실린 명의 경리 양호의 자문도 진린의 병력을 광동병(廣東兵) 5,000명으로 기록하였다.<sup>50)</sup> 이외에 『이충무공전서』, 이항복의 『백사집』, 김육의 『잠곡유고』 등도 진린의 병력을 5,000명으로 기록하였다.<sup>51)</sup> 『선조실록』의 기사에는 진린이 병력 9,000여 명을 이끌고 요동에 이르렀다고 서술한 기록도 있지만, 앞의 여러 기록과 비교해보면 과장된 숫자임을 쉽게 알 수 있다.<sup>52)</sup> 진린은 1598년 6월경 조선에 도착하여 선조의 환대를 받은 다음 조선 수군과 합류하기 위해 남해안으로 내려갔다.<sup>53)</sup> 계금은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수병 3,000~3,300명을 이끌고 1597년 10월경 조선에 도착하였다. 계금의 파병 소식은 1597년 3월 일찍이 조선 조정에서

48) 이형석, <부표 제26> 「제3차 동정군전투서열(東征軍戰鬥序列)」, 앞의 책, 1974, 1716쪽; 參謀本部, 「본편(本編)」, 『日本戰史朝鮮役』, 偕行社, 1924, 395쪽;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272쪽.

49) 『명실록(明實錄)』-「신종현황제실록(神宗顯皇帝實錄)」 권314, 만력25년(1597) 9월 9일 2번째 기사.

50) 『선조실록』 권98, 31년(1598) 3월 29일 갑인 6번째 기사.

51) 『이충무공전서』, 「행록(行錄)」; 이항복(李恒福), 『백사집(白沙集)』 권4, 「유사(遺事)」-「고통제사이공유사(故統制使李公遺事)」; 김육(金瑄), 『잠곡유고(潛谷遺稿)』 권13, 「신도비명(神道碑銘)」-「이통제충무공신도비명(李統制忠武公神道碑銘)」.

52) 『선조실록』 권100, 31년(1598) 5월 16일 경자 3번째 기사.

53) 『선조실록』 권101, 31년(1598) 6월 12일 을축 3번째 기사; 『선조실록』 권101, 31년(1598) 6월 26일 기묘 1번째 기사.

알려졌다. 계금은 절강 출신으로서 휘하 부장과 병력 또한 주로 절강과 남직례(南直隸) 사람으로 구성되었다.<sup>54)</sup> 1597년 9월경 형개는 만력제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절강의 수병 3,000명이 여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고 하였는데, 정황으로 보아 계금의 병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sup>55)</sup>

『양조평양록』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에 대해 제독 진린이 본래 거느렸던 육병 5,000명과 수병 3,000명을 포함하여 총 13,000여 명이라고 기록하였다.<sup>56)</sup> 진린이 본래 육병 5,000명과 수병 3,000명을 거느렸다는 내용은 일부 오류인 듯하고, 그 병력의 숫자로 미루어 보아 조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진린과 계금 각각의 병력 5,000명과 3,000명을 묶어서 진린의 본래 병력이라고 기록한 것 같다. 『양조평양록』에 유격 계금이 수병 3,300명을 거느리고 수군절도사 이순신과 합류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sup>57)</sup>

명 수군 장수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은 왜교성 전투 때인 1598년 9월 30일 휘하 병력을 이끌고 왜교성 앞바다에 이르러 진린과 계금의 병력에 합류하였다.<sup>58)</sup> 사로병진 작전 시기에 동원된 명 수군은 이때 병력이 모두 한곳에 집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조평양록』에 기록된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 13,000여 명에서 진린의 병력 5,000명과 계금의 병력 3,000명

54)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明 水將 季金の 군사 행적 고찰전」, 『이순신연구논총』 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7~11쪽.

55) 형개(邢玠), 『경략어왜주의(經畧禦倭奏義)』 권2, 「守催閩直水兵併募江北沙兵疏」.

56) 제갈원성(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 권4, 「일본하(日本下)」, “陳璘仕水路提督, 率其原帶陸兵五千水兵三千, 專管海上防倭, 而副總兵陳璘鄧子龍遊擊馬文煥季金張良相等皆屬之, 共兵一萬三千餘名.”

57) 제갈원성(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 권4, 「일본하(日本下)」, “今水兵止三千三百名, 孤弱難倚, 總督不得已令, 水兵遊擊季金, 統率仍同朝鮮官李仁前, 去與水軍節度使李舜臣, 合營.”

58)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8년 9월 30일.

을 제외하면 그 나머지는 약 5,000명이다. 『상촌집』에 기록된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력은 총 6,200명으로서 5,000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상촌집』에 실린 명 수군 병력에 과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양조평양록』에 기록된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 13,000여 명은 사실에 가까운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병력은 왜교성 전투를 치르면서 일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므로<sup>59)</sup> 노량해전에는 13,000명 내외의 병력이 참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촌집』과 『재조변방지』에 따르면 전쟁이 끝난 뒤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 병력은 총 8,300명이다. 이 병력에다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 13,000여 명을 합하면 21,300여 명에 이른다. 흥미롭게도 이 숫자는 본래 명에서 파병하기로 계획한 수군 병력 21,000명과 거의 일치한다. 『상촌집』과 『재조변방지』가 전쟁 이후 조선에 도착한 명 수군 병력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조실록』의 1598년 10월 기사는 당시 명 수군 병력을 19,400명으로 기록하였는데, 『상촌집』의 일부 기록과 마찬가지로 과장되었거나 아직 조선에 도착하지 않은 병력까지 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sup>60)</sup>

59)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24일 병자 2번째 기사; 趙慶男(趙慶男), 『난중잡록(亂中雜錄)』 권3, 1598년 10월 3~4일; 陳景文(陳景文), 『섬호집(剡湖集)』 권하,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10월 3일. 왜교성 전투 때 발생한 명 수군 병력의 사상자는 기록에 따라 그 숫자가 다르다.

60)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12일 갑자 7번째 기사.

## 나. 병선 규모

1592년 9월경 명의 병부시랑(兵部侍郎) 송응창(宋應昌)은 일본군이 명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목적으로 만력제에게 병력 모집, 병선 건조, 수군 매복 장소 선별, 해전용 무기 조달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소를 올렸다.<sup>61)</sup> 이에 따라 명의 병부는 많은 수의 병력과 병선을 징발하여 천진으로 집결시키고 추가로 새 병선을 건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징발된 병선은 절강(浙江)의 사선(沙船) 20척, 절강의 호선(唬船) 60척, 남직(南直)의 사선 20척, 남직의 호선 40척이다. 그리고 새로이 건조하기로 한 병선은 복선(福船) 20척, 창선(倉船) 80척 또는 100척, 사선 50~60척, 팔장(八槳)·오장(五槳)·팔라호(叭喇唬) 30~40척이다. 이때 병선 1척의 탑승 인원은 복선 80명, 창선 40명, 사선·호선·팔장선 20명 또는 15~16명으로 산정되었다. 징발된 병력은 절강의 사선·호선 80척에 탑승한 인원 약 1,500명, 남직의 사선·호선 60척에 탑승한 인원 약 900명, 사병(沙兵) 7,000명, 복건병(福建兵) 3,000명, 새로 건조될 복선·창선·사선·호선·팔장선 등에 탑승할 인원 5,400명이다.<sup>62)</sup>

임진왜란 초기 송응창의 상소에 따라 징발하거나 건조된 병선은 총 320~360척이며, 병력은 병선의 규모에 맞추어 약 17,800명이 징발되었다. 이때 추진된 병선 계획이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병선 규모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병선의 종류와 운용은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

송응창의 상소에 나타난 병선 계획을 살펴보면 명 수군의 병선 가운데 사선·호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정유재란

61) 천상생(陳尙勝), 앞의 논문, 2018, 279쪽.

62) 구범진·김슬기·김창수·박민수·서은혜·이재경·정동훈·薛戈, 『명나라의 임진전쟁: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 1, 국립진주박물관, 2020, 322~333쪽.

시기에도 사선·호선은 명 수군의 주요 병선으로 운용되었다. 『선조실록』의 기사는 왜교성 전투 때 손실된 명 수군의 병선 23척 가운데 큰 병선 2척은 각각 100여 명을 실었고 나머지 작은 병선 21척은 각각 30여 명 또는 40여 명의 병력을 실었다고 기록하였다.<sup>63)</sup> 그 탑승 인원을 통해 큰 병선은 복선이고 작은 병선은 창선·사선·호선 등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난중일기』는 이때 손실된 명 수군의 병선이 사선 19척과 호선 20여 척이라고 기록하였다.<sup>64)</sup> 비록 『선조실록』과 『난중일기』의 기록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명 수군의 주력 병선이 사선·호선이라는 사실만은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그림 1> 『무비지』의 사선



\* 출처: 『속한국선박사연구』

<그림 2> 『무비지』의 팔라호선



\* 출처: 『속한국선박사연구』

63) 『선조실록』 권105, 31년(1598) 10월 24일 병자 2번째 기사.

64)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8년 10월 3일. 이날 일기는 왜교성 전투에서 손실된 명 수군의 병선을 사선(沙船) 19척, 호선(號船) 20여 척으로 기록하였다. 비록 손실된 병선의 숫자는 『선조실록』 기사와 다르지만, 병선의 종류를 명확히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왜교성 전투 때의 사선·호선 1척의 탑승 인원은 임진왜란 초기 송응창의 상소에서 산정된 사선·호선 1척의 탑승 인원보다 더 많은 30~40여 명이다. 『경략어왜주의』에는 1592년경 사선 50척과 사병(沙兵) 1,700여 명을 모아 천진으로 지원을 나간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1척의 탑승 인원을 계산해보면 34명이다.<sup>65)</sup> 『선조실록』과 『경략어왜주의』의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시기 사선·호선 1척의 탑승 인원은 30~40여 명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사선은 중국 강소와 절강 지방에서 발달하여 양자강 이북에서 널리 사용된 선박이다. 본래 조운선(漕運船)으로 개발되었으나 나중에는 병선으로도 사용되었다. 크기는 명 시대를 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 등으로 다양하며, 길이는 크기에 따라 각각 100척·70척·50척·30척 등이다. 보통 대형 사선은 돛만 사용하고 소형일수록 노를 많이 두었다.<sup>66)</sup>

호선은 팔라호선으로도 불리며 중국 명·청 시대에 절강과 복건 지방에서 사용된 비교적 작은 병선으로서 길이는 40척, 너비는 10척 정도이다. 돛과 노로 운행하며 속력이 빨라서 연해를 정탐하거나 적선을 쫓기에 편리하므로 16세기 명의 척계광(戚繼光)이 왜구를 토벌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sup>67)</sup>

『경략어왜주의』에 따르면 1598년 1월경 수병 10,000명이 여순에 집결할 때 사선·호선 등의 병선 280척이 동원되었다.<sup>68)</sup>

65) 형개(邢玠), 『經畧禦倭奏義』 권2, 「守催閩直水兵併募江北沙兵疏」.

66) 김재근, 앞의 책, 1994, 133~138쪽. 이 책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으로 파견된 사선을 조선 남해안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50~70척 크기의 중형 사선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검토한 송응창의 병선 계획과 『선조실록』·『경략어왜주의』에 기록된 탑승 인원을 살펴보면 중형보다는 소형에 가까웠던 것 같다.

67) 김재근, 앞의 책, 1994, 138~140쪽.

68) 형개(邢玠), 『經畧禦倭奏義』 권4, 「申飭五鎮沿海春汛疏」, “水兵一萬, 沙唬等船二百八十隻, 周于德移駐旅順.”.

병선의 종류가 사선·호선만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선 1척의 평균 탑승 인원이 약 35명이므로 병선 대부분이 사선·호선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순에 집결한 수병과 병선은 조선 파병 계획에 따라 동원된 수군으로서 사로병진 작전 시기 명 수군의 상당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의 병선 규모도 대략 추정이 가능하다. 진린과 계금의 휘하 병력이 총 8,000여 명이었으므로 두 장수의 병선은 280척의 약 80%인 220여 척 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다.

왜교성 전투 때인 1598년 9월 30일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이 이끌고 온 병선은 130척이다.<sup>69)</sup> 앞 절에서 파악한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력이 5,000명에 가까운 규모이므로 이들의 병선 1척의 평균 탑승 인원은 대략 38명이다. 이는 1598년 1월경 여순에 집결한 병선 280척의 평균 탑승 인원과도 거의 부합한다.

진린·계금의 병선 220여 척과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선 130척을 더하면 350여 척이다. 여기에 왜교성 전투 때 발생한 병선의 손실 23척 또는 39척을 적용하면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의 병선은 대략 300여 척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1598년 6월경 진린이 병선 50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로 갔다고 기록하였다.<sup>70)</sup> 진린은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으로 왔으므로 500여 척을 이끌었다는 『선조수정실록』의 기사는 지나친 과장이다. 일본 연구서인 『일본전사조선역』 또한 사로병진 작전 시기 조명연합수군의 선박을 약 500척으로 과도하게 서술하였다.<sup>71)</sup>

69) 이순신(李舜臣), 『난중일기(亂中日記)』, 1598년 9월 30일; 진경문(陳景文), 『섬호집(剌湖集)』 권하, 「예교진병일록(曳橋進兵日錄)」 9월 30일. 『난중일기』는 이날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이 100여 척의 선박을 이끌고 왔다고 기록하였으며, 『섬호집』은 이날 명 수군 130척이 적의 성 머리에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다.

70) 『선조수정실록』 권32, 31년(1598) 6월 1일 갑인 6번째 기사.

71) 參謀本部, 앞의 책, 1924, 416쪽.

## 4. 맺음말

지금까지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명연합수군의 규모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70여 척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조선의 삼도 수군 판옥선 80여 척 가운데 경상좌수영의 10여 척을 제외한 규모이다. 조선 수군의 병력은 판옥선 70여 척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인 약 10,000명으로 추정된다. 『임진전란사』의 조선 수군 장수 명단은 현재까지도 종종 관련 연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명단을 여러 관련 사료와 비교·검토하여 새로이 보완하였다.

정유재란 시기 명에서 과병하기로 계획된 수군 병력은 총 20,000여 명으로서 그 일부는 전쟁이 끝난 1599년경 조선에 도착하였다. 『양조평양록』은 사로병진 작전 시기의 명 수군 병력을 13,000여 명으로 기록하였는데, 여러 사료와 연구 자료를 비교·검토해보면 사실에 가까운 숫자로 생각된다. 이 명 수군은 대략 진린의 병력 5,000명과 계금의 병력 3,000명 그리고 왕원주·복일승·이천상의 병력 5,000명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왜교성 전투 때 발생한 사상자를 제외한 13,000명 내외의 병력이 노량해전에 참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주력 병선은 사선·호선으로서 1척의 탑승 인원은 보통 30~40여 명이었다. 1598년 1월경 명 수군의 병력 10,000명이 여순에 집결할 때 사선·호선 등의 병선 280척이 동원되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왜교성 전투 때의 병선

규모와 손실을 함께 계산해보면 노량해전에 참전한 명 수군의 병선은 대략 300여 척으로 추정된다.

정유재란 시기 조명연합수군의 규모는 두 나라의 수군 전략에 대한 연구 성과와 함께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그 연구가 이미 여러 학자에 의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본 논고를 쓰기 시작하였지만, 곧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중국 사료인 『경략어왜주의』의 기록을 살펴보다가 정유재란 시기 명의 수군 전략이 아직 규명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군사 전략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본 논고의 3장 “명 수군의 규모”가 부족한 점이 많은 채로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 1. 사료

『巨濟府邑誌』 『羅州郡邑誌』 『亂中日記』 『亂中雜錄』 『明實錄』  
『眉叟記言別集』 『白沙集』 『象村集』 『事大文軌』 『宣武原從功臣錄券』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剡湖集』 『輿地圖書』 『燃藜室記述』  
『梧里集』 『李忠武公全書』 『全鮮茂長誌』 『再造藩邦志』 『懲毖錄』  
『忠烈祠誌』 『忠武公遺事』 『咸平縣邑誌』 『經畧禦倭奏義』  
『藤堂家覺書』 『征韓錄』 『兩朝平攘錄』

### 2. 단행본

구범진·김슬기·김창수·박민수·서은혜·이재경·정동훈·薛戈, 『명나라의  
임진전쟁: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역주』 1, 진주: 국립진  
주박물관, 2020,

<http://uci.or.kr//G901:A-0010827172@N2M>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옥선 학술 복원 보고서』, 목포: 국립해양문  
화재연구소, 2022,

<http://uci.or.kr//G901:A-0010636920@N2M>

김재근, 『속한국선박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윤헌식, 『역사자료로 보는 난중일기』, 서울: 북랩, 2020,

<http://uci.or.kr//G701:D-00122063861@N2M>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4,

<http://uci.or.kr//G701:B-00118427028@N2M>

이형석, 『임진전란사』, 서울: 신현실사, 1974

조원래·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첸상셴(陈尚胜) 외, 『韓中日共同研  
究 정유재란사』, 과주: 범우사, 2018,

<http://uci.or.kr//G901:A-0009277989@N2M>

有馬成甫, 『朝鮮役水軍史』, 海と空社, 1942  
參謀本部, 『日本戰史朝鮮役』, 偕行社, 1924

### 3. 논문

- 김경록, “임진왜란시 조명연합군 지휘체계와 수군과병 과정”, 『이순신연구논총』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2013):1-29,  
<http://uci.or.kr//G901:A-0003515109@N2M>
- 김경태, “일본군 기록으로 본 순천 왜교성 전투 -『宇都宮高麗歸陣物語』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삼국의 사료를 통해 본 임진왜란』,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2022):85-128
- 김병륜, “관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2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2013):169-217,  
<http://uci.or.kr//G901:A-0003387181@N2M>
- 박현규, “임진왜란 시기 明 水將 季鎭의 군사 행적 고찰전”, 『이순신연구논총』21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2014):1-35,  
<http://uci.or.kr//G901:A-0003586568@N2M>
-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경상좌수군의 위상과 활동”, 『군사』109호(2018):281-320,  
<http://doi.org/10.29212/mh.2018..109.281>
- 제장명, “정유재란 시기 해전과 조선 수군 운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4),  
<http://uci.or.kr//G701:B-00093063403@N2M>
- 한명기,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군사』38호(1999):33-55,  
<http://uci.or.kr//G901:A-0001362575@N2M>

(Abstract)

## A study on the Scale of Combined Naval Forces of Joseon and Ming in the Battle of Noryang

Lee, Jong-hwa

Yoon, Hun-sik

The Noryang(노량) Maritime Battle has a very important historical significance whole throughout the Imjin War. I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was the battle of the Joseon-Ming Combined Fleet fighting together and also the final battle of the seven years of Imjin war against Japanese invasive forces. However the general level of historical understanding for this sea battle is not very high compared to its importance.

It was simply recognized as a battle in which Yi Sun-shin(이순신) died, and the Japanese troops returned back to their country and finally the Imjin War was over. In fact, not enough individual studies dealing with the background of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the combat power of friend or foe's participation in the battle, the course of the battle, and its historical importance.

Many researchers still have slightly different views on the size of the Joseon and the Ming naval forces that participated in the sea battle of Noryang.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the size of the Joseon naval forces has been grasped to some extent however the size that of the Ming naval forces remains controversial.

The size of the Joseon-Ming Combined Fleet at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is an important topic to understand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Joseon and Ming naval forces at that time. The more accurately we can grasp the size, the better we can understand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Joseon and Ming naval forces, and the better we can read the course of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and the war status and process of Imjin War.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ize of the Joseon and the Ming

naval forces that participated in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in detail by reviewing some historical literature and various research data dealing with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In particular, by researching newly introduced or excavated historical materials in detail, this study tried to clarify what existing researchers missed about the size of the Joseon-Ming Combined Fleet at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The size of Joseon naval forces was estimated in more detail than previous studies by comparing and examining changes in the size of the front line battleships after the Myeongnyang(명량) Sea Battle, the loss of the front line battleships during the SaroByeongjin Operation(Four Way Breakthrough Operation 사로병진 작전) and the number of remaining front line battleships after the Noryang(노량) Sea Battle. To this end, this study referred to various historical sources such as 『Annals of King Seonjo(선조실록)』, Yi Sun-shin(이순신)'s war diary 『Nanjung Ilgi(난중일기)』, Cho Kyung-nam(조경남)'s 『Nanjung Japrok(난중잡록)』, Lee Won-ik(이원익)'s 『Orijip(오리집)』, Lee Hang-bok(이항복)'s 『Baeksajip(백사집)』, Jin Kyung-moon(진경문)'s 『Seomhojip(섬호집)』, a Japanese record 『Jeonghanrok(정한록)』.

The size of Ming naval forces was referred to records of Ming dynasty such as 『Gyungryagoejui(경략어왜주의)』, 『Yangjopyongyangrok(양조평양록)』, 『Gyungryagbokgukyopyon(경략북국요편)』 and also the records of Joseon dynasty such as 『Annals of King Seonjo(선조실록)』, Yi Sun-shin(이순신)'s 『Nanjung Ilgi(난중일기)』, Sin Heum(신흙)'s 『Sangchonjip(상촌집)』, Shin Gyung(신경)'s 『Jaejobunbangji(재조번방지)』 were cross-verified.

Keywords : Jungyujaeran, The Battle of Noryang, Combined Naval Forces, The size of the naval forces, Yi Sun-shin

